

20대,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를 읽고

김정일

김정일 정신과의원 원장

지하철역에서 내가 꼭 주의해 읽는 글이 있다. <사랑의 편지>라는 짧은 에피소드가 그것이다.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은 내게 소중한 마음의 정보로 전달된다. 어떤 때 그 글은 마치 점장이처럼 현재의 내 심경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영혼을 맑게 가다듬어주기도 한다.

사색의 여유가 없는 요즘 젊은이들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 빠른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려면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고 상한 진리가 당장 소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시절(76학번)에는 헤르만 헤세, 괴테, 셰익스피어 등의 고전을 꼭 읽곤 했으나 요즘 대학생들은 그러한 것 같지가 않다. 당장 눈 앞의 바쁜 현실에 적응하기도 바쁘는데 한가로이 사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려면 개인이 강해야 한다. 정보화시대는 누가 빨리 정보를 획득, 창출하느냐를 다투는 사회로, 자기가 안목을 키워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서는 개인을 강하게 만드는 책이 어필하는 것 같다. 정보화 시대에 약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도태된다. 분초를 다투

는 전쟁터에서 용기도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는가?

그러나 현대의 발달한 자본주의, 과학문명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허약하게 만든다. 특히 우리 사회같이 부모들이 극성스럽게 과잉보호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아도, 고통을 겪지 않아도 한동안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사회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강함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시절까지는 허약하게 지내도 정작 취직할 때는 강인함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다가는 면접에서부터 밀려난다. 그래서 뒤늦게 사람들은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며 강인함을 키우려 한다.

이것이 잘 안될 때 그 개인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이 그것이다. 요즘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쩍 늘어난 병이 대인공포증이다. 사회는 강인함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강해지려면 뜻과 자신감, 미지의 세계에 부딪치는 용기, 시련을 극복하는 인내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곱게 자란 사람들은 이들을 자꾸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과잉보호가 만연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대인공포증이



20대 체험에 담긴 저자의 담대한 자세는 배우되,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은 자신이 도전해야 함을 독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많아지는 것 같다.

너무 저자 중심적 성향

대인공포증으로 찾아온 한 대학생에게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나카타니 아키히로, 홍익출판사)를 읽었다고 하니 까 읽었다고 한다. 아마도 강인함을 키우기 위해 그 책을 읽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시련과 도전의 소중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으니 담담히 맞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저자 중심적인 성향이 느껴진다. 아마 저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는 20대가 끝나갈 때 쯤에는

우유부단한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 부딪치고 겪고 도전해야 할 것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하고 성실하게 소화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을 공략한다. 그러나 타고난 자기성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도, 적극성을 떨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저자의 20대 체험으로 보고 그 담대한 자세만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20대 때 꼭 50가지를 해야 할 이유도, 100가지를 하면 안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화제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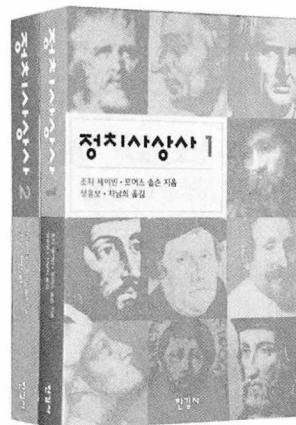
인류의 정치사상과 이론 총망라

조지 세이빈 지음 《정치사상사 1·2》

정치학의 고전으로 명성이 높은 조지 세이빈(1880~1961)의 《정치사상사 1·2》(History of Political Theory)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1937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정치사상사 제1의 기본교재로 쓰이고 있는데, 시대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한 제4판을 텍스트로 옮겼다(성유보, 차남희 옮김).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저자 세이

빈은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 키케로, 마키아벨리, 토머스 모어, 존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데이비드 흄, 헤겔,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 엥겔스 등 거의 모든 정치사상가들을 다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파시즘까지 정치 이론의 전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이빈의 저술은 그 오랜 생명력 만큼이나 신뢰를 주고 있다.



사상사가 단지 어느 학설과 인물의 사상이 발전하는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대 정치·경제·문화 등의 영역에 나타난 사고방식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이라 할 때, 저자는 방대한 자료에 근거해

서구 정치이론의 전체 역사를 사회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저술하고 있다. 도시국가이론에서부터 보편적 공동체론, 민족국가의 이론으로 공산주의와 파시즘, 국가사회주의에 이르는 정치사상의 거대산맥들을 풍요롭게 저술하고 있다.

이번에 번역된 제4판은 특히 자유주의 후기부터 마르크스주의와 변증법, 공산주의 부분을 제자인 토머스 솔슨이 재구성, 현대사를 보는 시대흐름을 반영했다. 생물학적 진화의 연장에서 문화적 진화론을 보는 솔슨의 관점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관점에 가까운데, 이런 경향이 4판에 영향을 미쳤음도 밝히고 있다. ❖

한길사/A5신/각 1336면 내외/각 20,000원